

社說

시설관리공단 설립 신중해야

포천시가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 운영중인 각 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들이 비효율적이거나 혹은 정치적인 논리로 직원을 채용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공공시설물 관리의 전문화를 통한 경영수익 사업이나 주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는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은 그 자체가 공공조직이다. 공기업이 무사안일에 젖어 경영적자는 물론 주민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봐 왔다. 또 포천시에서 설립을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이 후속 設官(위인설관 :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자리를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은 공단설립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만 너무 강조하고 부정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고정자산을 제외한 운전자금 등 공단설립 초기 자본금이 3억2천만원이 소요되는 데도 시민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 또 시의원들이 용역 보고회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 관리공단 필요성은 공무원들의 의견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이다. 3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실시한 용역결과는 소위 돈 되는 사업이나 공단관리방식에 의한 관

단에 너무 치우쳐 있다. 시설관리공단은 일종의 공기업이다. 공기업이란 공공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한다. 그렇다고 하면 관리방식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포천반월아트홀이나 시청사 청소용역 등도 당연히 공단업무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울러 경영기법 또한 공공조직 기법보다는 경쟁체제를 갖춘 사기업체 경영기법 도입이 필요하다.

지난해 10월에 설립된 시흥시 관리공단의 경우는 직원들의 봉급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 너무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적인 측면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산출이나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시 예산을 들여 공단 설립을 추진하기 때문에 현행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만큼 포천시청 업무 및 공무원 인력 감축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공무원 숫자는 그대로 두고 업무만 신설되는 관리공단에 위탁한다면 입장만 편리하게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다.

결국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주민 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공익성과 경영수지를 맞추는 경제적 타당성 그리고 인력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시기와 규모를 선택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郷土원로초대석 ①6 재단법인 동천장학회 이사장 강수동



강수동 재단법인 동천장학회 이사장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배우고 싶어도 돈이 없어 배움의 길을 갈 수 없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동천장학회 강수동(71·사진)이사장은 "내가 사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세 번의 수술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정직하고 정확하게 노력하면 복이 온다’

‘우리나라에 골재생산시스템 구축해야 한다’

된 강 이사장은 영중면 거서리에서 태어나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남몰래 도와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금을 헌납하고 있다. 특히 강 이사장은 포천문화사 수장자들의 모임 자리에서 알게되어 포천메나리보존회에 매년 1천만원의 기금을 지원함으로써 제1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포천종합고등학교 학생들이 메나리보존회로 출연하여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여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사례는 좀처럼 찾아볼수 없는 사례로 기업이 지역문화를 가꾸고 지키는데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북면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남몰래 통장으로 입금하는 금액도 상당하다. 어떤 노인은 강 이사장이 보내주는 돈을 매번 모아 두었다가 장례비로 쓰고 나머지는 마음에 기탁하겠다고 하며 이장에게 80만원의 돈을 맡기기도 했다는 소문도 들린다. '정직하고 정확하게 산다'를 평생 좌우명으로 삼아 信用本位로 기업을 운영함으

로써 큰 복을 받았다는 강 이사장은 누구에게나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기회는 온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아무도 그곳에서 우수한 일이 생산될 거라고는 기대를 하지 않았던 산을 매입해 4년 동안 잡석을 모두 제거한 후야야 비로소 백색의 돌을 발견했을 때 그 보람과 기쁨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회고한다. 이것 역시 정직하게 믿음을 갖고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것이 두 번째 실패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도전이었다고 한다.

우리사회가 급속하게 발전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방예지국의 전통도 덩달아 사라지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특히 동천장학회를 운영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나 학부모 누구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데 인색하다는 점이다. 참고로 동천장학회는 매년 대학교 입학생에게는 200만원, 고등학교 입학생에게는 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포천에서 기업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사항에 대해 강 이사장은 불편을

느껴보지 못했다며 오히려 기업주들이 양심을 갖고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석산 개발 후에 북구해안에도 불구하고 이항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지적한다. 13년전 큰 수술에 앞서 의사가 자신을 80%만 믿어달라는 말을 받고 수술에 성공하여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강 이사장은 지나온 삶의 역경을 다 정리하면 소설 한편은 찍히 될 것이라며 회고한다.

포천신문이 지역신문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 매우 감사하며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팔자 말고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희망하기도 했다. 특히 강 이사장은 우리나라 건축업계에 물량제공 차원에서 산에서 나오는 마사토는 모래로 폐색은 자갈로 개발해 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골재도 수입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다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강 이사장의 모습에서 기업가의 진면목을 엿게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윤종하

골든자기방구 대표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국민의식개혁이 국가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특히 그린피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골포여행을 떠나는 관광객들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40여년간 가구업계에 종사해온 윤종하(50·가산면 마점리) 골든자기방구 대표는 지속적인 경제불황 타개책을 이렇게 설명한다.

'티끌모아 태산'을 경영철학으로 삼아 저축을 실천해온 윤 대표는 포천시가 가구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로 외부자금이 포천시로 유입되는 것이 포천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가구업계 흐름에 대해 불박이장의 불편함을 지적한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가구를 매우 소중히 여겼다. 특히 자신이 쓰던 가구에 대한 애



또 윤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도 심각하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생산이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 원활한 인력수급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윤 대표가 포천신문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최호열 발행인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 좋은 일 같이 하자며 시작된 포천신문 인수 이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경제분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 대표는 각 분야별 자문위원들간의

이한철

(주)정우식품 대표이사

전국에 닭고기 도축가공회사는 60여개사가 된다. 대부분이 식용 육계닭을 취급한다. 그중에서 3개사만이 산란노계를 취급한다. 정우식품(주)은 이들 3개업체에서 원료를 공급받아 햄의 원재료를 생산하는 업체로 20여년간 성장해왔다. 정우식품(주)을 지난 86년부터 20여년간 이끌어온 이한철(58·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대표이사를 만났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정직하게 신뢰를 가지고 산다"는 이 대표이사 정우식품(주)을 시작하게 된 것은 축산농가에 의해 운영되던 업체가 지난 83년도에 부도도 폐쇄될 위기에 처하자 포천시 축산과장이 포천축협 전무이사에게 인수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되면서부터다. 당시 양계농가가 가장 많았던 포천에서 햄의 원재료를 생산하는 업체의 부도도 타마에 공장을 세운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업체를 인수



출했다. 또 포천시 14개 읍·면·동장 가운데 청성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6명이나 된다. 이윤기 일동면장, 양철중 이동면장, 이봉훈 군내면장, 연제남 신북면장, 연제순 포천동장, 이성호 영중면장 등이다. 시청 과장 중에서도 김용기 수도사업소장, 정병학 지역산업과장이 청성초등학교 출신이다. "포천에서 태어난 것도 운명이다. 자람으로 생각하고 고향도 영원히 저버리지 말고 세계를 향해 큰 꿈을 갖고 살았으면

성실한 의정활동 시민 삶의 질 향상

이중호 포천시의회의원 의정대상 수상



포천시의 행정자치위원장 이중호(47·사진·포천시 북내면 상성리)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시민일보 제3회 의정대상을 수상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98년부터 현재까지 포천시의회 의원으로 재임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여 왔으며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포천 관내 교육 지원경비지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 전체예산의 1%였던 것을 2%로 확대해 학교시설개선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수행했으며 모교인 청성초등학교 창설 기념 학적부의 원형을 되찾아주기를 실시하기도 했다.

또 지난 7년여동안 포천시의회 의원으로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여 의정활동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온 이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앞으로 더욱 시민과 시의 발전을 위해 일해달라는 제책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앞으로 계획에 대해 지금 상태보다 더욱 전문화된 의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됨에 따라 환경에 맞는 의원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5대 포천시의회가 풀어야 할 숙제는 교통 문제라고 지적했다.

포천시의 교통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 사업의 성격이지만 그동안 국가예산을 포천시로 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량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포천시민 모두 힘을 모아 포천시 교통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천시의회원으로 활동하기 이전에 16년동안 새마을운동에도 적극적으 헌신해온 이 의원은 포천시 공직자들로부터 논라적이며 균형각각이 있는 의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의 의정대상 주요 공적사항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 수행▶균형 개발을 위한 의정활동 추진▶시민의 삶의 질 향상 중점추진▶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에 노력 등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불우이웃돕기 운동에 다같이 나서자’ 의결

21일, 본지 운영위원회 제46차 정기회의

본지 운영위원회(위원장 윤이용)는 지난 21일 본지 대회의실에서 제46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불우이웃돕기 운동에 동참하는 등 포천신문이 정분지로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나가자고 의결했다. 백봉기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20여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했으며 백봉기 부위원장은 "경기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사업하는 시라 노고도 많다"며 "더욱 성장 발전하는 포천신문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운영위원회가 지난 4년 동안 포천신문이 정분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위촉된 선임 회원 한 운영위원(원주삼 유 대표)은 내촌면에서 앵골라, 울, 먼, 덩부립 전문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는 불우이웃돕기 참여의 건과 유로복지회비의 건, 회간 제16주년 기념식 지원의 건, 회비를 적금식으로 관리한다는 재무 보고의 건 등을 처리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본지 운영위원회는 지난 21일 본지대회의실에서 제46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의식 개혁으로 불황 타개해야 한다” ‘티끌모아 태산’을 경영철학으로 삼아 노력

작이 강하다. 그런데 불박이장은 옮겨 갈 수 없다. 오래된 집이 불박이장이 그대로 사용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가구는 독립된 가구여야 하며 장인정신이 들어있는 가구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판매의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한다. 너무 터무니 없는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광고에 소비자들이 현혹되기 쉬운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광고하는 제품은 무조건 메이커라는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광고를 하지 않은 제품이 더 좋은 제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윤 대표는 현재 가구업체를 운영하면서 포천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소각로 공동설치 문제다. 환경법이 바뀌면서 소형소각로를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다. 대형소각로만 설치할 수 있는데 대형소각로를 설치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영세업체가 대형소각로를 설치한다면 경영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공동소각장을 설치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각 업체들간의 공동노력이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포천상공회의소나 포천시가 이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기대하는 것도 이같은 문제 때문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상호 만남과 진지한 토론을 통해 포천신문이 지역사회에서 매체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포천신문이 불우이웃돕기 운동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된다. 자문위원회가 수선 수범하여 공동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했으며 자문위원 각자가 마음을 모으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학생들에게 책가방이라도 살 수 있도록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천신문에 바라는 사항에 대해 윤 대표는 우리나라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배고픈 지역을 잊고 살고 있다며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급성장보다는 서서히 발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멋진 신문으로 거듭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윤 대표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아들에게 사업을 인수하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합동결혼식에 장례를 기부하고 싶다고 한다. 어려운 이웃에게 정을 베풀고 싶다고 했다.

최근 가구업계에서 북한에 가구 보내기를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실시하고 있는데 하물며 남한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지 않아서야 되겠느냐며 열심히 봉사하고 싶다고 밝혔다.

전기가 20만원 등 150만원을 지원했다. 한편, 이날 김정배추와 무는 본지 주부명예기자단 이은미 총무가 기증해 훈훈한 이웃사랑의 정을 쌓아가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11월1일~2일 사랑의 김장 담그기

본지 주부명예기자단 불우이웃돕기 위해

본지 주부명예기자단(단장 임경순)은 오는 11월1일과 2일 이틀동안 가산면 금현1리 본지 주부명예기자단 이은미 총무 자택에서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실시한다. 이날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통해 마련된 김장은 관내 독거노

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에게 전달하여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와 줄 계획이다. 본지 주부명예기자단 60여명이 참가하여 벌이게 될 이번 행사에는 강수동(주)삼우식재 회장이 50만원, 본지 운영위원회(위원장 윤이용)가 80만원, (주)고은중합

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왔다. 이 대표이사는 정우식품(주)을 인수하기 전에는 축산업에 종사했다. 양계와 비육우를 생산했다. 이 대표이사는 비육우 계통출하에 달인으로 알려졌다. 소 크기가 일이나 크나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던 당시 50여마리에 대해 포상금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대단한 실적을 거둔 축산업자는 없었다. 이같은 공을 인정받아 1978년10월26일에 축산업계를 대표하여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된다. 공적조서를 상신할 당시에는 장관상을 추천했으나 공적내용이 화려해 포천에서는 최초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군내면 명산리에서 태어난 이 대표이사는 청성초등학교를 나와 현재 포천의 2천여개 기업체중 몇 안되는 토박이 기업인으로 성장했다. 청성초등학교 총동문회장 직을 지난 7년동안 수행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역시 개교70년사 발간과 개교7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던 일이다. 이 대표이사는 청성초등학교 동문들은 자랑스러이 대안하고 한다. 청성초등학교 출신이 학교규모에 비해 포천시회에서 학계나 관·정계에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70년사를 편찬하면서 알게 된 사실로 청성초등학교 졸업생중 전현직 교장이 20여명이나 되고 이한봉 국무총리를 배

출했다. 또 포천시 14개 읍·면·동장 가운데 청성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6명이나 된다. 이윤기 일동면장, 양철중 이동면장, 이봉훈 군내면장, 연제남 신북면장, 연제순 포천동장, 이성호 영중면장 등이다. 시청 과장 중에서도 김용기 수도사업소장, 정병학 지역산업과장이 청성초등학교 출신이다. "포천에서 태어난 것도 운명이다. 자람으로 생각하고 고향도 영원히 저버리지 말고 세계를 향해 큰 꿈을 갖고 살았으면

충했다"는 것이 후배들에게 바라는 이 대표이사의 마음이다. '선출직은 시골 이장이라도 안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온 이 대표이사는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크고 작은 모임에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한봉 전 국무총리의 정치인 생을 24년간이나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치는 안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이사는 타인과의 관계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다. 남들과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면 비록 타인이 잘 못했다 하더라도 먼저 사과하여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주)정우식품 직원은 100여명이다.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직원들에게 회사가 발전하는 만큼 잘 해주고 싶다고 한다. 월급을 한 푼이라도 더 올려주고 싶다. 이 대표이사는 포천신문에 대해 "창간이후 어려운 과정을 거쳐 최호열 발행인이 인수한 이후 기대이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으며 어디에서나 포천신문을 자랑한다"며 "마지막 남은 포천의 지역신문으로서 건전한 비판기능을 강화해 포천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포천사회를 만들어내겠다는 이 대표이사의 얼굴에서 포천의 밝은 미래를 엿게 되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Box containing contact information for Pocheon News, including phone numbers, website, and address.